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 : A comparison of methods

▮ Sarah Brown, Daniel Gray, Jennifer Roberts.(2015). *Economics Letters* 130, pp.47-50.

본 연구는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방법론을 바탕으로 상대소득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소득가설은 듀젠베리(Duesenberry, 1949)가 개인의 저축행위에 대해 언급한 가설로서 개인의 효용은 개인의 소득과 다른 사람의 상대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대소득가설이 두 개의 흐름으로 분리되기 전까지 실증분석에 대한 유인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는데, 이후 이에 대한 두 갈래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실증분석이 많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흐름은 Kahneman and Tversky(1979)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절대적인 부(wealth)의 수준이 아닌 결정을 위한 준거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

효과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theoretical justification)를 말한다. 여기에 말하는 준거점 중 한 가지 가능한 준거점은 '다른' 비교 그룹의 소득이다. 두 번째는 '행복 경제학'의 태동은 주관적 삶의 질이 개인의 효용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reliable) 대리변수(proxies)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e.g. Clark and Oswald, 1994).

저자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소득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개인의 소득이 효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대소득 영향의 부호에 대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senik(2004)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비교 효과(comparison effects)에 대한 부(-)의 효과, 정보 효과(information effects)에 대한 정(+)의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소득가설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복지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1974)에서 나타나고 있는 잠재적인 설명력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있어 실증적 연구가 (이에 대한) 답변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더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결점(shortcomings)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영국의 가구 종단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교한 이유는 모형 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1)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pooled ordered probit), (2) 임의효과 순서형 프로빗 모형(random effect ordered probit), (3) 관찰되지 않은 시불변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mundlak 변환을 적용한 임의효과 순서형 프로빗 모형, (4)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이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상대소득 효과는 준거집단의 기준과, 효용의 대리변수인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의 삶의 질 관련 질문과 추정 방법론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 분석자료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Are worker flows in France and the US so different? Revisiting French empirical evidence

Richard Duhautois, Heloise Petit, (2015). *Economics Letters* 130. pp.60-62.

본 연구는 프랑스의 노동 유입(worker flow)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대한 재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 abowd et al(199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확립 수준(establishment level)에서의 고용 조정(employment adjustment)에 대한 본 논문은 어떻게 고용이 고용 증가에 조정되는지, 그리고 확립수준에서의 고용의 감소에 대해 분리가

어떻게 조정하는지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프랑스에서의 진입률은 고용성장률(심지어 부(-)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과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탈률은 고용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constant)하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이 연구는 burgess et al(2001) ; Davis et al(2006, 2012)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고용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대의 양상에 대하여 (프랑스 쪽 실증분석에 대한) 결정적인 참조 선행연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기업이 주로 진입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출구를 통해 고용을 감소시키며 고용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Davis et al(2006)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고용에 대한 이러한 조정 과정 함수의 시각적인 모양은 양면 반사된 “하키 스틱”으로 묘사될 수 있다. 결국 미국과 프랑스의 실증분석의 결과 모양은 각각 내비와 한 쌍의 하키 스틱이 서로 대칭된 형태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자료보다 더 최신이며 또한 완전히 구축된 자료(DMMO, 1999~2010)를 적용하였고 고용과 이탈과정에 제약을 두지 않은, 즉 개방형(open-ended) 계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에 비해 발전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저자들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의 개방형 근로계약 자료에 초점을 둔 분석결과는 미국의 노동시장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몇몇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모가 감소된 프랑스 기업은 고용의 감소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고용 보호 규정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이다”라는 가설의 설득력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과는 직업과 노동자 유입 간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보호 규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가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노동 유입 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흥미로운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문을 맺고 있다. 저자들이 언급한 확립수준에서의 고용 수준에 대한 기존 분석결과와 개방형 형태에서의 고용수준에 대한 새로운 분석결과와 모양(한 쌍의 하키스틱이 대칭된 모양과 나비 모양), 그리고 실증분석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은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Do women respond to changes in family policy?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the duration of mother's employment interruptions in Germany

■ Ziefle, A. & Gangl, M.(2014).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5), pp.562-581.

지난 20년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는 높은 실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지되어 왔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노동시장을 탈규제화시켰다. 이로 인한 고용 불안정의 증가는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고용의 특성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개인들의 이후의 경력 결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의 경제적 결과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그러

나 불안정한 고용의 결과는 가구 배경에서도 조절될 수 있다. 하지만 가구적 배경에서, 고용 불안정이 축적되는지 또는 보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 (축적이란 예를 들어 부부 간에 모두 고용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를 말하며, 보상이란 한쪽의 불안정이 다른 쪽의 안정으로 상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족이 시장 위험(가장 중요하게는 실업, 또는 불안정 고용)을 보상하는지 또는 가구/가족 수준에서 위험이 축적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료로는 EU labour force survey의 6개 국가에 대한 1992-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가구고용상황, 개인의 고용상황에 미치는 파트너의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능한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6개 모든 국가들에서 위험은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축적은 남유럽 국가들에서 높았으며, 그 이유는 잔여적 복지, 정체된 경제,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이다. 실업자들 중에서의 축적은 영국에서도 또한 높았으나,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는 훨씬 낮았다.

Social contacts of older people in 27 European countries: The role of welfare spending and economic inequality

■ Ellwardt, L., Peter, S., Präg, P. & Steverink, N.(2014).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5), 51. pp.655-669.

고령자의 사회적 접촉은 좋은 건강 그리고 기대수명과 일관되게 관련되어 왔다. 또한 주로 고학

력자, 근로자, 고소득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접촉의 정도는 국가들, 그리고 복지레짐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접촉이 나라들마다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과 신-물질주의에 기초한 이론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접촉이 소득 불평등이 낮고 통합적인 복지 지출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사회적 접촉에 대한 국가 특징들의 영향이 개인의 소득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을 세운다.

본 연구는 European Social Survey로부터의 개인 수준의 자료를 Eurostat으로부터의 국가 수준의 자료와 결합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사회적 접촉을 밀접한 접촉과 사회적 만남의 두 개의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과 고령자의 빈곤은 밀접한 접촉의 확률을 낮추었다. 복지지출, 특히 고령자에 대한 돌봄과 의료에 대한 지출은 앞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 때의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은 생애주기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정책은 고령자의 현재의 삶의 조건을 목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주기 가운데서 사회적 보호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The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OECD potential output

■ OECD, 2015. 7p. DOI10.1787/eco_studies-2014-5js64l2bv0zv

이 보고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OECD 잠재생산량(potential outpu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로부터의 잠재적 생산량의 손실(potential output losses)은 최근 OECD에서 공표된 추정결과와 '위기 이전의 생산성 추세의 지속,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동향에 민감한 고용률 추세'라는 조건에 입각한 가정과의 비교에 의해 평가된다.

2007년 11월 금융위기를 경험한 OECD 19개국 중에서 2014년의 잠재적 생산량 손실의 중앙값은 OECD 전체 가입국가의 총 잠재생산량의 손실이 약 3½%인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약 5½%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잠재적 생산력의 손실은 여러 국가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여러 작은 유럽국가들, 주로 유로존 지역이 10% 이상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낮은 생산성에서 기인하는 가장 큰 부정적 효과는 낮은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자당 낮은 자본 수준, 둘 다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조적 실업의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고용가능성의 기여는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이전의 심각한 침체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연금 개혁과 조기퇴직경로의 체결까지를 반영할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투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높은 총 경제 부채와 노동자 당 자본 수준의 빠른 성장을 포함한 경기과열, 금융과열 등과 관련한 위기 이전의 조건들은 모두 큰 위기 이후의 잠재 총 생산 손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잠재생산력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기 이전의 호황기에 상당한 자원이, 특히 자본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배분되었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더 많은 경쟁 우호적인 상품 시장의 규제가 잠재생산력의 더 적은 손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기업들의 자원의 재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여러 부문에 걸친 불리한 충격여과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Lessons from OECD forecasts during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OECD, 2015, 5p. DOI10.1787/eco_studies-2014-5jxrcm2gic7j

이 논문은 금융위기동안과 그 이후에 대한 OECD 예측과 관련하여 배울 수 있는 시사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및 회복기간 동안 GDP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OECD의 전망을 평가하고 있다.

일단, 성장은 추정합에 있어 반복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둔화의 정도와 이후 회복의 완만한 속도를 예측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많은 예측가들에 의해 유사한 오류들이 발생하였으며,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예측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장오차에 대한 분석 결과, 위기의 해와 관련한 OECD의 전망치들은 대체로 국제적인 무역 개방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외국 은행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회복기에 있어서, 통합재정회계 영향의 과소평가가 예측오차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대신에 유로지역의 위기가 성장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또는 완화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반복적인 조건화 가정은, 채권스프레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유럽 국가의 성장에 대한 전망보다 더 약하게 나타났다. 한편,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오차의 발생은 전례가 없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유사한 크기의 오차는 1970년대의 오일가격쇼크에서 최초로 발생했었다.

최근에 예측과 관련하여 맞닥뜨린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배울 시사점은, 단기 성장력을 관찰할 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장개발과 국제적 연계에 대한 더 나은 설명력을 위해서 OECD와 다른 국제적인 기구들이 그들의 예측기술과 절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